



제 8장
신약: 그리스
도의 탄생과
시험

B.C. 6년

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구세주를 기다려왔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정 네가 살 날이
오래지 않지만 너는 죽
기 전에 약속된 자를
볼 것이다.



시므온, 매일 오시는군요.
제사장들이 모두 당신처럼
독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성경 말씀을 뒤적이며 그리스
도에 대한 예언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이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들
이 바로 하와에게 말씀하신 여자의
자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
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
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미가서 5장2절에
의하면 그 아들은 하나
님처럼 영원하십니다.
시편 45편6절에서 하나
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
이라 부르는 예언은 또
어떻습니까?

그 말에 동의할
사람은 별로 없을테
니 그런 말들을 사람
들 앞에서 공공연히
말하시면 안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봅시다.
제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바
로 이 성전에 오실 것이며 제
가 그를 뵈올 겁니다.



옳은 말씀일 수
도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
요? 이 일에
대해 무엇을
압니까?



두 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공부했는
데, 500년 전에 다니엘
이 메시아가 올 때에
관해 아주 재미있는 말
들을 한 걸로 압니다.

창세기 3:15; 시편45:6;
이사야7:14,9-6; 다니엘
9:25; 미카5:2; 누가복음
2:25-26

서기관들도
모르는 어떤 일을
당신이 안단
말이요?



저희 아버지가 서기관이시라 그 예언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명이 공포된 때부터 메시아가 죽음을 당할 때까지 483년의 시간이 지날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서가 내려진지 이제 44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4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메시아가 길거리를 걷고 계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아직 아니야.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아기 메시아를 내가 바로 이 성전에서 볼 거라고 하셨네.

그런 것을 어떻 게 압니까?

알게 될
걸세.

시므온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며
약속된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기다리는 중,
사가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나이가 많았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단 오른쪽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으니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
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는 메시아가 올 것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킬 자이니
많은 이들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
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술을 마
시지 않으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
력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사실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와 제
아내는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늙었고, 엘리사벳은 평생 아이
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가브리엘이며 하나님의 이
일을 네게 말해 주라고 나
를 보내셨다. 표적을 원하
느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볼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집이 참 조용하네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말대꾸를 하지 말아야지요.

사가랴, 아직도 믿기 힘드네요.
우리 민족의 어머니 사라처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저는 위대
한 선지자의 어머니가 될 거예요.

4000년 동안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왔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모두를 다 지켰지요.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 뱃속에 임신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
의 아들이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했던
네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져 이제 여섯 달이 되었다.

누가복음 1:5-20, 26-40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제게 이루
어지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요셉이 과
연 나를 믿을까? 이해해 줄까?
내가 임신한 것을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엘리사벳에게
가서 함께 있어야겠다.



엘리사벳!

마리아!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구나. 내가 누구기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는가?
네 문안하는 소리를 내가 듣자
마자 아이가 내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더구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나의 구주 하
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가 큰 일을 행하셨
으니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가 낫고 천한 우리들을
높이셨구나. 우리 조상 아브람함에
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기
억하여 자비를 베풀셨어.

마리아는 엘리사
벳과 함께 석 달쯤
머물렀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날이 이르렀습니다.





믿지 않아서 천사가 병어
리가 되게 했대요.

아이의 이름을 뭐라
고 지으실 건가요?

서판을 달라셔.

천사가 명령한 대로 그
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신대요.

그런데 집
안에 요한이라
는 이름이 없잖
아요.



정말 남자아이예요.
아주 털이 많구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
입니다. 그가 우리 이스
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선포할 것입니다.

어, 말씀을 하시네요! 몇
달 동안 말을 못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시네요!

이 아이가
정말로 예언의
엘리야일까요?

한편,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발견했고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주위에 아무 남자도 없었는데. 언제나 자기 가족과 함께 있었거든요.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임신해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요셉아, 이제 어
쩌면 좋으냐?

이제 결혼은 못하겠죠.
하지만 공공연히 문제삼고 싶지
않아요. 마리아가 간음 죄로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조용히 파혼하
는 편이 나을 거예요.



마리아는 애
아버지가 누구라
고 하던?

아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네요.
아무런 육체의 접촉도
없이 성령에 의해 뱃속
에 생겼다구요.



세상에! 그
애가 정신이
나갔나?

마리아의
말로는 그 아이
가 세상의 구원
자, 하나님의 아
들이래요.

그런 여자가 하기엔
불경스런 말이지요. 가능
한 한 제일 빠르고 조용하
게 헤어져야겠어요.

그날 밤, 요셉이 잠자는 동안 한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
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
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
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
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
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자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보라 처
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 당신을 의
심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겠소?

알아요, 너무 공상 같
지요. 이스라엘 모든 여인
중에, 그리고 모든 시대 중
에 하나님이 하필 이 때의
저를 택하여 메시아를 세상
에 보내시는지요!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¹
실텐니,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까? 글씨도 읽을 수
있을까?

아, 요셉,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
시지요. 우리는 그저 기
다릴 수 밖에요.



우리는 둘 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거라고 했었지.

방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알겠어요! 이 아이는 남자의 씨가 아니라 단지 여자의 씨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 일을 태초부터 계획하셨다구요.

창세기 3:15; 이사야 7:14, 9:7; 마태복음 1:18~23; 누가복음 1:32~33



들이시오. 들으시오. 가이사
황제가 직접 서명한 로마 제국의
공식 칙령이오.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으
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자기가 태어난
마을로 가서 세금을 위해
호적을 등록하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미가 5:2) 오랜 예언이 있었지요. 곧 마리아는 엉뚱한 마을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몰랐고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셉, 당신이
베들레헴에 가야 한
다는 거잖아요. 아이
가 태어날 때 당신은
없을 거예요.

내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요. 당신도
함께 갑시다.



마리아, 당신을
이 여행에 데려오지
않는 건데. 다시 돌
아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 저는 당신
옆에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150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가는
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관에
방이 있나 찾아
보겠소.



마리아, 우
리를 도와줄 산
파를 찾았소.

여관에는 방
이 없었나요?

아니요,
전부 다 차
있었습니
다.



첫 아이인데
너무 잘 했어요.
마구간에서 태어
나 안됐지만.

그것으로 안타
까워 하지 마오. 언젠
가 이 아이는 세상을
다스릴 거요.

글쎄, 제게는
보통 아기로 보
이는데요.



아니, 천
사야!

수없이 많은 천사
들이야!

무서워하지 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
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
으니 곧 유대의 메시아,
주이시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사람에게 뜻이 있
으시므로 땅에 평화를 가
져오시는도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
적이 될 것이다.



자네들은 믿겨지나?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
타나다니!

아내에게도 어서
말해줘야지.

천사가 하는 말
자네도 들었나?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나셨다잖아!

가서 봅세.

구세주라!
사람에게 평화
로다! 아기? 우
리 가서 봅세!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천사가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했습
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날
것을 누가 상상
이나 했겠나!

누가복음 2:8~20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난 아
기를 제사장들에게 보여드
리고 율법대로 제물을 바칠
때가 왔습니다.



요셉, 오늘은
예수가 처음으로 성전에
오는 날이고 여기서는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것 같소.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
립시다.



시므온이 성전 안
에 있었습니다.

저기 있소!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마리아, 저 분
이 누구시지?

저도 모르겠네요.
여긴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우리 주 하나님, 송축합니다.
이제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구원을 봤
으니 평화롭게 죽을 수 있겠습니다. 그
는 이방에게는 빛이 되고, 또 이스라엘
에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
게 아셨나요?



내 말을 들으시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일어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할 것이며 비난을 받기도 할 것이오.



그렇소.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당신의 마음이 찢어질 것이오.



저길 봐요! 메시아예요!
그가 자기 성전에 왔어요. 선
지자들이 예언한 분이 바로 이
아기예요.

안나로군. 저
분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지.



젊은이, 이 아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일세. 그가 이
스라엘을 죄에서 구원
하실 거야.

그때부터 안나는 구원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
기에게 대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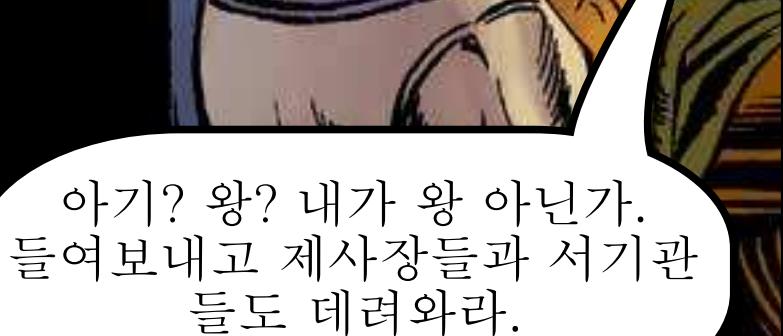
동쪽 나라들에 고대 글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약속된 자가 태어났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쪽을 가리키는 기이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멀리도 왔군 그래.
우리가 가는 이 땅은 참으로
낯선 땅이구만. 벌써 여행한
지 몇 주가 지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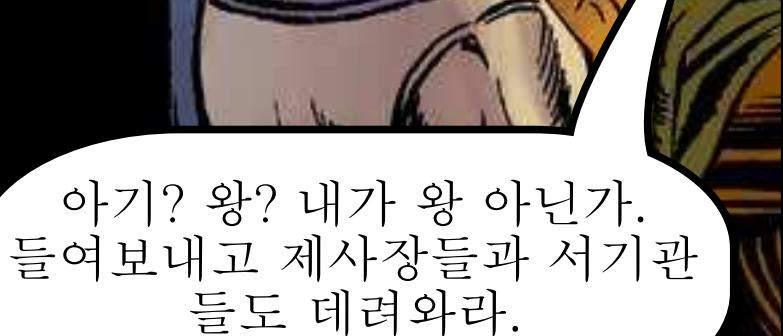
별이 계속 움직이는군.
가는데까지 따라가세.



혜롯 왕이시여,
아주 부유해 보이는
남자들 세 명이 동방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새로
태어난 왕이신 아기를 찾고
있답니다.



아기? 왕? 내가 왕 아닌가.
들여보내고 제사장들과 서기관
들도 데려와라.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임명한 유대인의 왕 혜롯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했지요. 박사들은 혜롯을 찾아가 새로 태어난 왕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기 왕을 보러
왔다고 했소?
그런 일들을
어떻게 아오?

저희는 동방
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
하러 왔습니다.

그가 어
디 있소?

저희도
정확히는 모
릅니다. 그래
서 왕께 온
것입니다.

내가 학자들을 불렀소.
그들이 무엇을 아는지 한 번
봅시다. 나와 같이 조용한 방
으로 갑시다.



저 사람들이 예언에
의하면 와서 백성을 구원하기
로 되어있는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구나. 그
왕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글이 있느냐?

예, 그러하옵
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가 올 것이라고 말하였
으나 저희들은 그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난 너희의 의견
따위는 관심없다.
예언에 정확히 뭐라
고 쓰여 있느냐?

저, 미가 선지자의 말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유대지파 자손 중에 태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8; 미카 5:2



자, 나도 가서 그 왕을 경배하겠소. 그러니 그를 찾으면 그가 어디 있는지 소식을 전해주시오.

물론입니다.
그를 찾자마자
곧 알려드리겠
습니다.

헤롯은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두려워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면 죽이기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글은 다른 것들과는 비교가
안 돼. 그렇게 자세한 예언
들은 본 적이 없다구.

서기관들이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히 알
다니, 정말 대단하군. 그린
데 자기 선지자들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저기 좀 보게.
우리가 동쪽에서
본 그 별이야!

정말 저 별은 우리가
이제까지 본 별들과는
달라. 다른 별들처럼 움
직이지도 않고, 별빛도
훨씬 밝잖아.

저 자리를
표시해두고 내
일 저 별을 따
라가세.



저기, 저 집 위에 떠 있어.
그렇지만 여긴 베들레헴이 아니잖
아 !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어쩌면
이사했는지도 모르겠군.

정말 긴
여행이었는데
이제야 거의
다 왔군.

정말 신기한
별이군. 별이 구름
보다 낮게 떠 있는게
분명해.

방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새로
태어난 왕께 경배하러
머나먼 길을 거쳐 이곳
에 왔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
까?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성문을
읽었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들도 그가
올 것을 예언했고, 별 하나가 나타나 우리
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별은 이 집 위에 떠있지요.



이 세상의
구세주께 경배하
며 이 작은 선물
들을 겸손히 드립
니다.

마태복음 2: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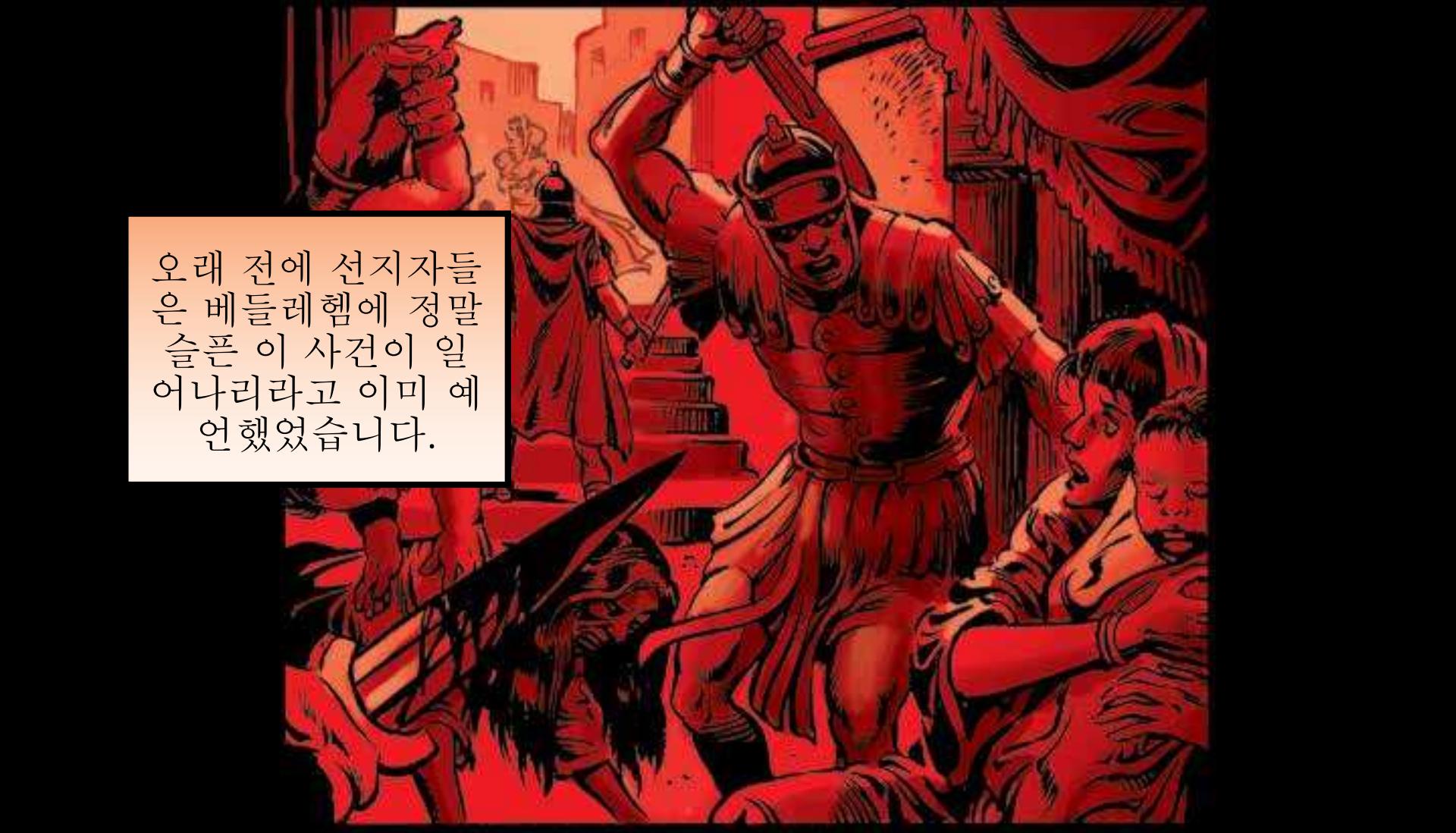
그 날 밤 하나님의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이 아이를 어디서 찾았는지 말하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요셉에게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하니 이집트로 도망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그놈
들이 나를 속였다. 다른
길로 집에 돌아간 거야. 그
말은 그들이 아이를 찾았고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두려
워했다는 뜻이다.



특전부대를 베들레
헴에 보내라. 두 살이 안
된 모든 사내아이들을 죽
이라고 해.



오래 전에 선지자들은 베들레헴에 정말 슬픈 이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이미 예언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선물 덕분에 그들은 필요한 여행비와 이 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지요.



헤롯이 죽고 예수님이 두 살이 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일 또한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왔을 때, 한 천사가 요셉에게 나사렛이라는 작은 도시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시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리울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 는 일이었지요.

우리 집 남자 다
섯은 하루 종일
일만 할 건가
요? 어서 와서
식사해요.

예레미야서 31:15; 호세아 11:1; 마태복음 2:13~23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다 자라 아주 지혜로운 자가 되어갔습니다.



아버지, 저도
예수랑 같이 가서
성전을 봐도
되나요?

예수야, 이 양을 제사
장들에게 가져다 드려라. 내일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제사장
들이 승인을 해야 한단다. 우
리는 오늘 밤 목을 곳을 찾고
있으마.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요셉
은 가족을 데리
고 유월절을 예
념하기 위해 예
루살렘에 갔습니
다. 그들은 죄사
함을 위한 제물
로 양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사가 지나고 며칠 후,



요셉, 예수가
아무데도 없네요. 오
늘 하루종일 그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떠난다는 걸 알고 있
었는데요. 친척 중에
어딘가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두고
왔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어.

돌아가서 찾아
보는 수밖에.



메시아가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일 것이라는
점에는 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다윗이 메시아가 마치 자기
하나님인 것처럼 그를 주라고
불렀다는 점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그의 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논리는
조심해야 한다. 그렇
게 나온 결론은 모독이
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너는
너의 해석이 맞다고
가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
기에는 장로들이 더 자격
이 있지.

이사야 9:7; 누가복음 2:42~46; 디모데전서 3:16~17





예수야, 너를
찾아 사방을 다
다녔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짓
을 했느냐?

이 아이는
우리와 이틀을 함께
있었오. 당신 아들
정말 특이하다오.



왜 사방을
찾아다니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성경 말씀을
저렇게 많이 아
는 젊은이는 본
적이 없소.

자기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니 무
슨 말이지? 그를 찾고
있던 사람이 그의 아
버지였지 않나?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돌아와서 그들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목수 일을 했고, 그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그는 항상 의롭게 행동했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이 죄에 빠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에 다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너무나 공정하군.
게다가 나사렛에 당신보다
더 나은 목수는 없소. 이것
과 똑같은 것 6개를 더 주
문하겠소.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여섯 달 먼저 아들을 낳은 것을 기억하시지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했고,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역시 오백 년 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 내 후에 오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존재하셨
다. 그분은 너희에게 물이 아
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
를 주실 것이다. 너무 늦기 전
에 죄에서 떠나라.

요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의롭
게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
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
엇입니까?



옷을 두 벌
가졌으면 옷 없는
사람에게 한 벌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
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을 주어라.

모든 사람을
위해 정의를
구하라.



요한, 정부 일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
시게 합니까? 저는
세무원이고 여기 나
발은 세관에서 일하
는데요.

너물을 취하지 말아라.
너희 직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강제로 거두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공
평하고 정당하게 해라.

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 종교 신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다스리는 사람에게
폭력을 쓰지 말고, 도적질 하
지 말며 네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돈이나 재산을 빼
앗지 말아라. 네가 받는 임금
에 만족하며 살아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
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너희가 회개하고 믿으면
그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를
거절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가 너희를 영원
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
져 넣으실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무슨 권리로
우리 종교 권위자들을 거치
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세
례를 주는 거요?

나는 단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뿐이
지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너희가 유대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 착각하고 있다.

너희는 교만과 자만의 죄악을
던져버려야 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
리에 놓였으니 만일 너희가 마음을 돌이
키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요한, 당신은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말하는데,
그가 오실 때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거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야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셨다.



이 때가 올 줄 알고 있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엄청난 슬픔을
겪을 거라고 말했었지. 네 아버지, 아
니 양아버지가 살아서 이것을 보았으
면 좋았을 텐데...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시작하겠느냐?
성전으로 가려
느냐?

잘 모릅니다. 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겠지요. 우선 가서 요한을
만나 그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부흥의 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왔습니다.

요한은 6개월 동안 말씀
을 선포하고 있었고 예수
님은 서른 살이었습니다.



이사야 40:3; 마태복음 3:1~12; 누가복음 3:15~18, 23; 요한복음 1:19~27, 33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려야 한다. 지혜롭게 생각하여 시간과 힘을 바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라. 불순종 하던 자녀라도 부모의 진실함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너희 가족들이 치유될 것이다.

너희 마음이 이렇다면,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을 기꺼이 따르고자 한다면, 그러면 이 물로 들어 오라. 내가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 겠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요한아, 내게 세례
를 주겠느냐?

당신이 제게
세례를 주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당신은
진정 의로운 분
이십니다.



요한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모두
순종해야 한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에
게 명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비둘기!
비둘기가
보여!

마태복음 3:13~17; 누가복음 3:21~22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제야 알게 되다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분이 바로 온
세상 죄를 다 가져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누가복음 3:22; 요한복음 1:29~34; 요한일서 2:1~2

하나님의
거룩한 분!

그가 오셨다!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야!

때가 되면...
그러나 먼저
시험을 통과하
셔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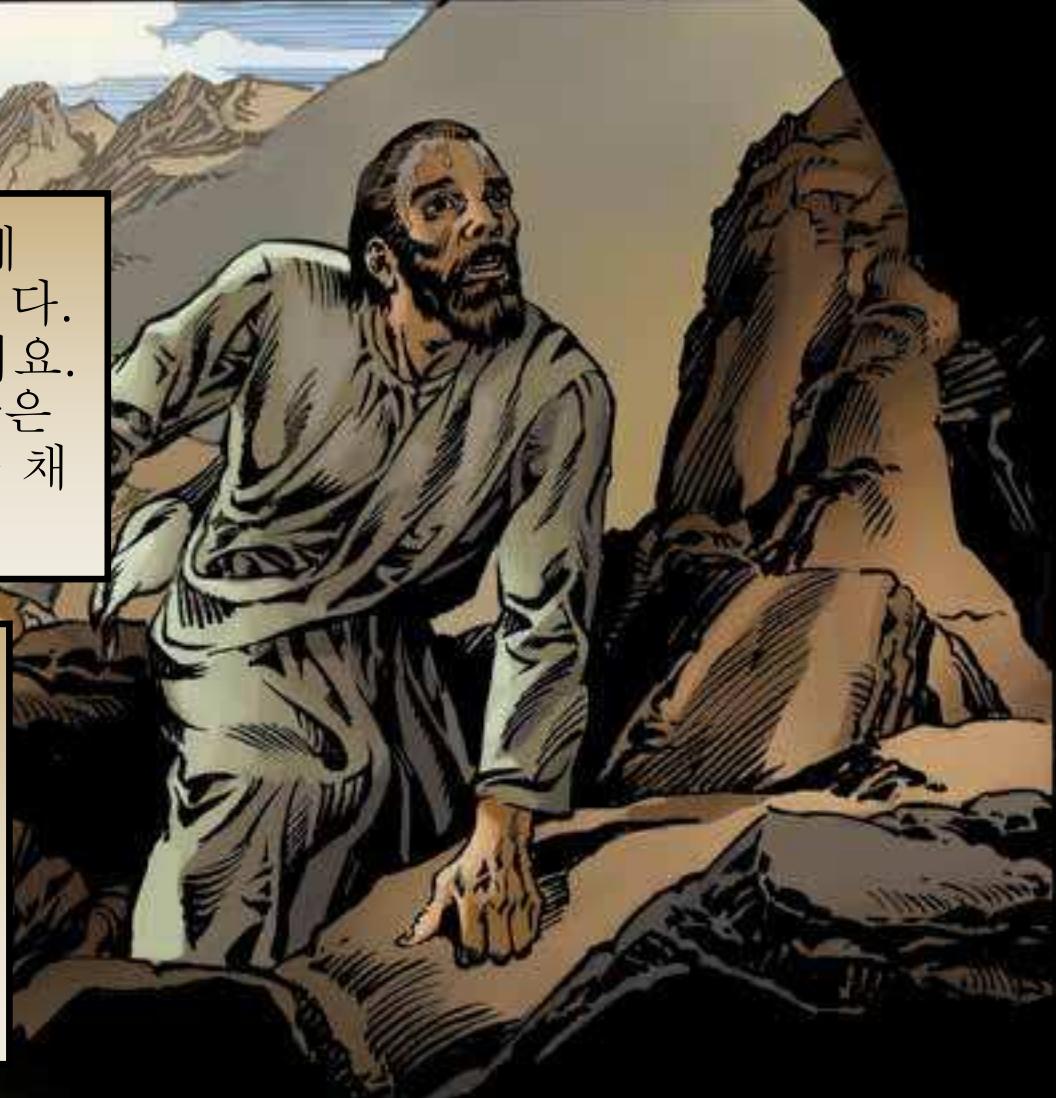
어디로 가시는
거죠? 나라를 되찾지
않으실 건가요?

어떤 시
험을?

아담과 그 모든 자손들이
실패한 시험이다. 그는 어둠
의 왕을 만나셔야만 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에게 40일 동안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음식도 먹지 않으셨어요. 그의 몸이 점점 더 쇠약해지자 사탄은 그에게 아버지를 거역하고 배고픔을 채우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특별히 받은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지만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실패한 이 시험을 통과하실까요?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 예수님은 굶주리고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제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몸이 자기 스스로를 먹기 시작할 정도로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홀로 있고 버려지고 아프고 약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사탄은 의심과 두려움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유혹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예수님의 가장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탄은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지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먹을
권리가 있다.

마태복음 4:1~3; 누가복음 4:1~3;
로마서 3:23, 5:12~21; 히브리서 4:15



사탄은 첫 사람 아담에게도 금지된 무언가를 먹으라는 유혹을 했었습니
다. 그는 이제 그것과 똑같은 유혹을
이 끌주리고 약해진 인자이신 예수
님께 하고 있는 것이지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에
게 그것은 정말 큰 유혹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배고
픔을 채워라.



아니, 그러지 않겠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
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자.
네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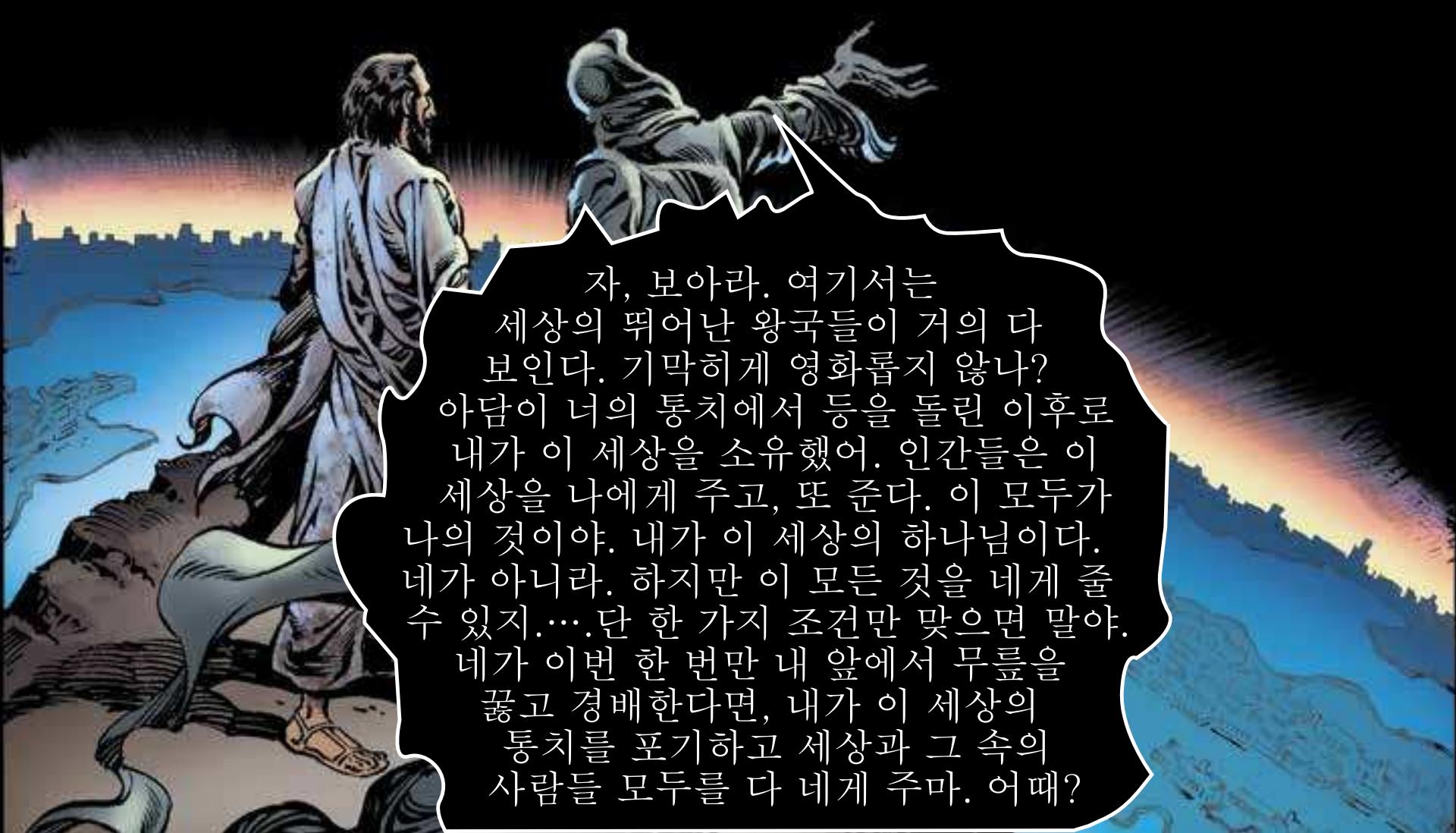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잡아 준다면 사
람들이 모두 그것을 보고 너를 메시아
로 인정할 거야. 그것이 네가
온 이유인 줄 내가 안다.

성경에는 또한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
이 있다.

네가 성경 말씀 운운했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빨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이제 저들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네가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하러 온 줄 안
다. 그러니 네가 좋아할 만한
것을 네게 보여주지.



자, 보아라. 여기서는
세상의 뛰어난 왕국들이 거의 다
보인다. 기막히게 영화롭지 않나?
아담이 너의 통치에서 등을 돌린 이후로
내가 이 세상을 소유했어. 인간들은 이
세상을 나에게 주고, 또 준다. 이 모두가
나의 것이야. 내가 이 세상의 하나님이다.
네가 아니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네게 줄
수 있지.... 단 한 가지 조건만 맞으면 말야.
네가 이번 한 번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면, 내가 이 세상의
통치를 포기하고 세상과 그 속의
사람들 모두를 다 네게 주마. 어때?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 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너는 실패 했으니 이제 여기 서 물러가라.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인간 역사상 최초로 사탄은 한 사람과의 대결에서 그를 속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신 것이지요.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인간이 하나 생긴 겁니다.

40일 동안의 시험
은 끝났지만 예수
님은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음식과 물을 가져와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습니 다. 예수님은 다시 힘을 되찾으신 후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 셨습니다.



마태복음 4:8~11; 누가복음 4:14



<https://goodandevilbook.com/>